출범 3년 맞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광주 만든다

올 주요 업무계획 시의회 보고
시민 소통·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 12건 추진

올해 출범 3년차를 맞는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더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집중한다.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시민 소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예방 환경개선, 시민참여 치안역량 강화 등이 담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올해 업무 시작을 알렸다.

2023년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소통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 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 행안부 특교세 지원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 ▲시민참여 지역 치안역량 강화 ▲THE 안전한 교통정책 추진 등 12건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곁에 자치경찰 안전가득 행복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참여와 현장소통을 이어왔다. 올해도 '위원회 현장회의' 개최와 함께 노인·여성·청소년 및 주민대표 등과 만나는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치안시책에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자치경찰 취지에 맞게 시민이 기존의 소극적인 치안 수요자에서 적극적인 치안활동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장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치안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또 지역 치안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빛고을 자전거 순찰대, 청년서포터즈 112, 현장활동가 중심의 정책자문단 운영 등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역 맞춤형 시책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사업'도 강화한다.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사업'은 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 여성권익 지원 기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운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 진단을 통한 재범예측 평가도구 개발, 가정폭력 재범방지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6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첨단 산월초~천곡중 일원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는 'THE 안전한 교통정책'도 강화해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에도 힘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고령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자진반납 홍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불법행위 단속과 계도를 적극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교통 등 34억여원 규모의 26개 세부사업을 지원, 시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밀착형 치안시책 추진에 매진하겠다"며 "자치경찰제가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전국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갖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미세먼지 두 토끼 잡는다

광주시 올 708억원 투입
대기환경개선 지원 대폭 확대
전기차 760대 늘려 4800대 보급
충전기 설치 등 17개 사업 추진

광주시가 '맑고 깨끗한 공기, 숨 편한 도시 환경'을 목표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동시 추진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 거치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냉난방 가스열펌프(GHP)의 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가해 총 17개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58억원을 투입한다. 보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760대 늘어난 4800대다. 이는 2021년(2205대)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광주지역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23%를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충전인프라도 확대 구축한다.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충전기는 지난해 65기보다 170% 증가한 175기로 늘린다.

또 단독주택단지와 골목길 등 충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한전 전주에 완속충전기 30기 이상을 설치하는 '전주 거치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운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한 지원금 대상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오는 3월부터 7200대에 대해 166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56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30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250대 ▲어린이 통학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146대 등 총 5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대형건물과 중소사업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냉난방 가스열펌프(GHP·Gasengin Heat Pump)'의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대당 175만원씩 103대를 지원한다. 또 주택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사업은 대당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씩 총 1만280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되면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멈췄던 일상과 산업현장이 정상화되면서 미세먼지 발생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기오염 배출원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점검

치킨집 970곳 소비기한 등 대상

광주시는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치킨집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개 반 33명이 참여해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전문음식점 970곳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세균오염도검사(ATP)기기를 사용해 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 세척, 소독 전후 세균 수치를 현장에서 보여주며 손 씻기와 조리기구의 살균·세척에 대한 중요성 등을 직접 알리고, 영업자에게 올바른 튀김용 유지 교체 시기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치킨집 등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맞춤형 부동산 지원서비스 활용하세요

광주시 취약계층 중개료 등 지원

광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부동산 거래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부동산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다.

지원 희망자는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상담소'에서는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이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법률과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집보기 동행)'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희망 시민은 매주 수요일 오후 시청 1층 민원실 부동산 거래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2-613-5658)를 이용하면 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지원 정책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광주시, 300만~5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광주시에 등록(2022년 12월31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자치분권, 문화예술, 사회복지, 생명·안전 등 4개 유형에 대해 1단체 1사업당 300만~5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줄이기, 산업재해 및 자살 예방 등 생명·안전 유형을 신설해 안전 관련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3월 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전 형 일: 2023. 2. 6(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전 형 일: 2023. 2. 6(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